

JULY
12th

은혜한인교회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1부 중보기도 : 선교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마리아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청년부팀 (2:00pm~3:30pm)

“누가 참 이웃인가” [눅 10:25-37]

2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되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2]

- 1)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 2) 이 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 병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3)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보내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켜 고침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 4)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2차 재확산도 막아 주셔서, 성전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5) **모든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예배 순서 마다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 2 & 3부: 김대규목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6]

- 1) 찬양 중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 2) 찬양 인도자 및 팀원들, 반주자, 악기 담당자, 음향 담당자 등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오니, 호흡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3) 찬양 중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 4) 다윗의 찬양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 5)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문기훈목사, 권상욱목사, 이정호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최대현장로, 김명기장로, 김준규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회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하늘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 회중의 마음에 들리지게 하옵소서

- 1)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신앙의 개혁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2) **”누가 참 이웃인가”**의 말씀을 통해, 때를 분별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삶을 통해 거룩을 나타내게 하옵소서[말씀: 눅10:25-37]
- 3)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는 자의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 4) 말씀이 선포 될 때,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일천번제 새벽기도 (4/10/2021 까지)
- 한 여름 성령집회: “신앙이 다시 타오르게 하라”(딤후 1:6)
일정 : 7/23(목)-26(주일)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죄악에 물든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설교시간에 어두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의 분위기가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 3)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벧전 3:12) 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 4)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시119:50)”**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행 26:18]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2.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3.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세계선교 마무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5.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6. 굶주렸던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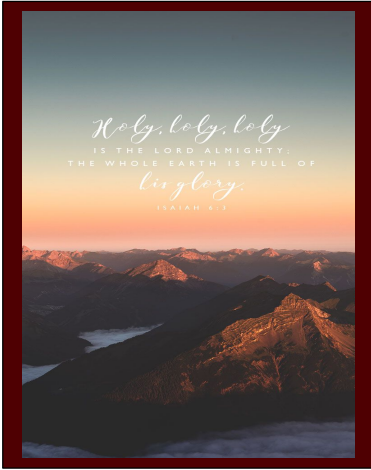
-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a.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b. 날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물들로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 c. 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 d. 드러지는 헌금이 복음전파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 1)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 2)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말씀통독**을 통해,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 3) 온라인으로 드러지는 그룹 및 가정교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의 한 지체되게 하옵소서.
- 4) 직장이나 사업장 등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 1) 다음세대가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셔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2)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3)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대면 기간동안 학생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게 하옵소서.
- 4)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EM 과 교육부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5) 한인 2 세들이 성령충만하고 실력 있는 리더가 되어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 미국을 다시 한 번 일으키고 선교하는 민족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 1) 하나님의 긍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모든 질병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2)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옵소서.
- 3) 환우와 가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옵소서
- 4)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 5)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 받지 않고 날마다 주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 6) 이들을 돕는 모든 사역자와 사역팀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성령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를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귀국하셔서 음성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은 자택에서 자기 격리 중입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한국 사역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 2) 복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풍성한 확장이 있게 하옵소서
- 3) 선교사님들이 성령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성령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모든 선교지에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히 병환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 2) 선교지의 모든 성도들이 환난의 시기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 3)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4) 전 세계에 세워진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충성스런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1. **두산배 최윤섭 선교사님과 성도:**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 되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교사님의 건강과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바스쿠 강형민 선교사님:** 열과 함께 후각 마비 등 코로나 감염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 성도 중 5 가정에서 약 25 여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생명을 지켜 주시고 치료과정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도록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하바롭스크 정소남, 미선 선교사님 :** 코로나 확진자 2 명과 폐렴환자가 4 명이 발생했습니다.(이 중 한 분은 사역자입니다) 그 가정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A 국 이에신 선교사님:**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의 치유가 선교사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암에서도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터키 최 00, 이 00 선교사님:** 이선교사님의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속히 깨끗이 치유되도록/ 어린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6. **네팔 오 000 선교사님 :**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방역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 오랜 LOCKDOWN 으로 생계가 어려운 현지인들을 위해

많은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자와 재입국 절차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관련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동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교회의 공예배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본교회 현장 예배는 2 주 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회복해 주옵소서.
 -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 교회 현장 예배 중 찬양, 성경암송, 선포 등을 금지 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예배의 회복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2. **COVID-19** 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3. 팬데믹의 여파로 교회의 목회자들 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선교/전도 활동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기간, 선교지에서의 다음 사역을 위해 영육간의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비대면 사역을 준비함으로써 선교/전도가 계속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4. 미국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현재 하루 확진자 수는 6 만 5000 명을 넘었습니다.
 -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 주옵시고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 개인주의와 무질서 버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5. 미 국무부가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자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계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혐의를 모른 채 구금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관련 이유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무역전쟁,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제간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행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यो

[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골 1: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를 공황히 여기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I. 자신과 미국의 죄를 위한 회개 기도

- a) 이 나라 미국을 복 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금지시키고 기독교 상징물들을 뽑아내고 공적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 b) 불신앙, 성적타락, 동성애, 폭력, 탐욕, 극단의 이기주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소서.
- c) 이 나라가 수 많은 포르노 영화를 만들어 수출함으로 세계의 젊은이를 타락시켰고, 1973 년에 낙태를 허용함으로 매년 150 만명의 태아를 살해했음을 용서하소서.
- d) 이 나라가 원주민들과 노예들에게 행했던 횡포와 무자비를 용서해 주옵소서.
- e)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II.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 a)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정부도, 문화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주옵소서.
- b)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족들을 사탄의 공격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집중하게 하소서.
- c) 교회를 떠난 모든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들이 이들의 수용을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 d) 교회가 진리, 순결, 정직, 사랑, 섬김, 배움 등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e)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서로 주께하듯 섬기며 사랑함으로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소서.

III. 동성 결혼 철폐와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 a)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관이 수호되게 하시고 동성 결혼을 비롯한 비성경적인 가정 제도가 없어지게 하소서.
- b)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여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 c) 부모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며, 자녀들이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사랑과 용서가 있고, 정직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 d) 이 땅에 성경적이고 건전한 가정 사역 단체들이 많이 세워져 결혼교실, 부부세미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을 통해 가정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 e)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지켜시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COVID-19

전세계 확진자 : 12,664,695 / 사망자 : 563,703

미국 확진자 : 3,315,629 / 사망자 : 136,958

OC 확진자 : 22,650 / 사망자 : 412

더욱 은혜를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GMI 선교사님들 가정이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자유로운 현장 예배와 전도와 선교사역이 제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전 평소대로라면 이번 주 주말에 한여름 성령집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은혜 받는 부흥회로 성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지는 시간일 텐데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강사님이 오시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너무도 아쉽기에 기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7월 23일-26일까지 한여름 성령집회를 직접 인도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저의 계획된 스케줄은 부흥회 끝나고 사할린 TD 하고 북방 선교를 위한 신학교 1기 졸업식을 하고 2기 입학식까지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사역을 끝내고 한국으로 가서 탈북자들을 위한 은혜동산 16기를 인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름 단기 선교와 부흥회 일정도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쉽지만 현지에 사모하고 기다리던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님들이 너무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재난과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해결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지독한 것이 분명한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앙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되려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일천번째 새벽 기도회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상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답답한 만큼 짜증나고 힘들어도 주안에서 기도하며 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축될 것이 아니고 더욱 적극적으로 은혜 받고 행복 나눔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단기선교는 못가도 선교지 행복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를 나누며 배풀 때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일천번째 새벽예배를 드리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주님이 이루신 희생과 대가를 아는 성도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울에서 인사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일 새벽에 인천에 도착하여 15일 12시까지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검진을 받아 음성 결과가 나와야 그리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을 겪어 내면서 오늘은 주님이 치르신 희생과 고뇌를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 아는 성도는 은혜에 감사 할 줄은 알아도 주님께 헌신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이루신 치르신 희생과 대가를 아는 성도만이 그 분 앞에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 26:38)

우리 주님께서 그렇듯 심히 고뇌하신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첫째로 십자가를 지시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분께서 고뇌하신 보다 더 큰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공존 하실 수 없는 그 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 속에 마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그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 후까지 자신의 형상을 훼손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와의 교통이 차단된다는 사실이였습니다. 그것이 그 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고뇌에 차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분이 경험하시는 고통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지 마는 우리 주님은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고통의 반대편에 계시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그토록 괴로운 것이었지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드리기 위하여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치르신 희생과 대가를 깨닫고, 기억하므로 그 분 앞에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올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올레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올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로서 ‘하나님의 변동 없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의 동사 ‘하카’ 동사에서 파생되었고 ‘올레’, ‘규례’, ‘법도’, ‘명령’, ‘규정’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 [George Bowen, Daily Meditation, 1873]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눈물의 안개가 그의 눈을 덮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여다 보고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한다. 요나가 깊은 바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올레를 배웠음을 보여주었다. 심연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심연을 지난 온 그에게 또 다시 고난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아직 배우지 못한 올레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박 녀들은 시들어 버려야 했다. 그는 겸손의 골짜기로 또다시 내려가야 했다. 심지어 가장 심각한 고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자신에게 시련을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다.

■ [John Spencer]

마틴 루터의 아내는 이르기를, “만일 하나님이 나를 곤경 속으로 몰아넣지 않으셨다면, 나는 시편의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갖가지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마치 학생으로 하여금 시편을 책에 고정하라고 가리키는 선생의 지시봉과 같다.

■ [윌리엄 카우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올레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에 관해 말하고 있다.

- † 형통함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듯이, 역경은 그 눈을 열어준다. 시련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안달하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심령의 눈을 밝혀주며, 그 심령을 보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시련은 체험을 낳고, 체험은 지혜를 낳기 때문이다.

찰스 스펀전 시편 강해 중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 8:18)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orld Prayer Center

기도지 제작 : 은혜 한인교회 중보기도국
문의 : gracewpc.com